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35 호 2002. 12. 26(목)

# 順天金氏宗報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 김중식/편집인 : 김학원/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 新年辭



癸未年 元트를 맞이하여 宗親 여러분들의 家庭이 더욱 康健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壬午年은 順天 金門이 歷史의 盤石위에 正坐하여 子子孫孫 名門華閥의 後裔로서의 矜持를 갖겠끔 同源齋를 비롯하여 全國 到處에 散在해있는 史蹟趾를 新 改築 및 補修淨化 하므로, 後孫된 道理를 다하고자 盡力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현재 同源齋는 聖域化事業이 마무리되어 聖스럽고 雄壯하게 드러내는 姿態는 他 氏族의 羨望의 對象이되고 새로운 歷史觀光 名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년 春三月에는 順金의 얼이 살아숨쉬고 忠과 孝와 節義가 어우러져 燦爛한 清白吏 精神을 내뿜는 大同譜가 發行되면 大韓民國 靑史에 자리매김을 하고 國民 精神教育의 指標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中央 宗親會는 同源齋 聖域化事業이 마무리되므로 今年부터 中始祖를 비롯하여 各 派祖의 史蹟趾를 淨化하고자 있는 精誠을 다 쏟아 놓

을 것입니다.

向後 宗親會의 運營과 위선 사업은 특정 極少數 宗親의 快擲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宗親이 參與하는 正성어린 獻誠에 의하여 運營될 것입니다.

晝夜를 가리지않고 祖上님들의 偉業을 즐기차게 推進하여나가는 大多數 宗親들의 피눈물나는 땀방울이 宗史를 흠뻑 적시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極少數 몇몇宗親이 羊頭狗肉으로 偽裝하여 崇祖敦睦하는 우리의 家風에 먹칠을 하고 다니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양의 해를 맞이하여 偽裝한 양가죽을 벗어던지고 祖上님과 宗親들앞에 悔改하고 참 모습으로 順金의 품안으로 들어오기바랍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들의 기업체의 사무실과 가정의 거실에 우리의 혼날인 玲瓏한 大同譜가 비치되기를 기대하면서 祖上의 蔭德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癸未元旦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 慶

升淵宗親  
會長 就任  
대한생명

# 祝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藍翊判典節默	浦贊事書齋齋	公公公公公	派派派派派	宗宗宗宗宗	會會會會會
尚橫君監判正	衣城守察書郎	院正公公公公	派派派派派	宗宗宗宗宗	會會會會會

# 順天金氏 中央 宗親會 第13期 定期總會 盛況裡에 開會

順天金氏 中央宗親會는 壬午(13期)年 定期總會를 2002年 10月 30日 中央宗親會 任員을 비롯하여 各 地域宗親會 및 各 派 宗親會의 指導級人士들이 雲集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3 삼성 빌딩에서 開會하였으며 秀淵(한길교회목사)宗親의 司會로 始終一貫 和氣靄靄한 가운데 會議가 進行되었다.

國民儀禮와 顯祖에 대한 默念에 이어 鍾植 中央宗親會長은 인사 말씀에서 上系에 대한 文獻 考察에 盡力을 다한 精神文化院 東柱宗親을 비롯하여 各門中 門長들에게 勞苦를 致賀 하였으며 向後事業은 同源齋 聖域化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中始祖를 비롯하여 全國 到處에 散在해 있는 史蹟址를 復元 및 淨化事業을 실시할 것이며 順天獎學會도 가난한 後孫들에게 좀더 많은 受惠가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니 賢明하신 宗員들께서는 宗사를 逆流시키고 分派行爲를 하는 極少數 宗親들의 甘言利說과 流言蜚語에 眩惑되지마시고 家門의 名譽와 내일의 後孫들을 위하여 一心專力하여 爲先事に 率先垂範하자고 말씀하였다.

### 功勞賞 受賞者



金正泰



金仁燮

### 改正會則

#### 第七章 褒賞

##### 第二十五條 (褒賞)

1. 本會의 發展과 國家 社會에 寄與한 功이 顯著한 會員에게 會長團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褒賞한다.
2. 會員은 本會則의 目的과 義務事項을 이행치 않을 때는 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團 會議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한다.  
懲戒凡例 ① 會員資格停止  
② 諸般宗事に 參與 中止  
③ 일정기간 謹身 措置

### 協찬금 및 년회비 입금 내역

이름	금액
中央宗親會 會長 金種植	壹佰萬원
副會長 金相容	五拾萬원
망미당공과宗親 奉斌	100,000원
海南 相允	50,000원
안산 景南	50,000원
大邱 榮熙	50,000원
부산 우영	30,000원
(주)紹陽 東和	100,000원
서울 順元	30,000원
덕소 기수	20,000원(회비)
서울 鍾股	100,000원
전북 창주	30,000원
과주 성희	30,000원
서울 東錫	100,000원
錦山 東澤	50,000원
海南 재희	30,000원
保寧宗親會	50,000원
서울종친회 喆熙	회환

式順에 따라 功勞賞과 孝行賞 施賞式을 하였으며 壬午年 功勞賞에는 正泰(正郎公祭壇 및 南隱公 神道碑豎立 推進委員會 會長)宗親과 仁燮(中央宗親會 運營委員)宗親에게 功勞牌를 授與 하였다. 이어서 孝行賞에는 16년간 病患에 呻吟하는 시아버지를 至極精誠으로 看護한 전남 海南군 여수리 이 길순 여사와 10년간 病患에 呻吟하는 시어머니를 至極精誠으로 看護한 부산 광역시 진구 부암3동 560-14 협성피닉스타운 107동 30호 권 정선여사에게 각각 孝行牌와 은수저 한 벌씩을 수여하였다.

뒤이어 幹事長(學元)의 業務報告와 監事(景南)의 監查報告를 들고 이어 第13期 決算審議와 第14期 豫算案을 上程하여 深度있는 審議를 하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기타 사항에서는 會則 改正案을 通過시킨후 閉會하였다. 이날 中食은 升淵((주)한화 會長)宗親이 提供한 호텔 프라자 도시락으로 즐거운 食事を 하였다. 이날 獻誠金 內譯과 改正된 會則은 아래와 같다.

#### 第八章

##### 第28條 (派宗會 地域宗親會)

1. 本會는 派宗會 및 地域宗親會(廣域市 및 道單位로 局限한다.)를 傘下組織으로 構成하고 本會則에 準하여 運營토록 한다.
2. 本會는 派宗會와 地域宗親會의 運營상 固有業務에 對하여 干여치 않는다.

第29條 本會는 宗報를 發刊하여 會員相互間에 情報를 交流하고 團合과 親睦을 다지면서 多岐적으로 變化되는 宗中과 宗員間의 動靜을 바르고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本會 運營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정한다.

1. 宗報는 年 4회 以上 發刊한다.
2. 編輯委員을 若干名으로 定하고 會長이 任命한다.
3. 編輯委員은 宗報發刊全般의 事項을 審議監督 하고 公正性을 갖춘 名實相符한 消息誌가 되도록 編輯刊行토록 한다.

第29條 (經過措置)을 30條로 한다.

第31條 (施行日) 本 會則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1989년 9월 24일 制定)

(2002년 10월 30일 改定)

이름	금액
龍仁필성공과	50,000원
釜山宗親會	50,000원
담양 관영	50,000원
부산 길수	100,000원
海南 正泰	30,000원
海南 政壹	100,000원
忠南宗親會	100,000원
正杰	20,000원(회비)
大田 炳鮮	100,000원
大田 正雄	100,000원
대구 東均	100,000원
利丞	50,000원
東燦	50,000원
서울 雄烈	100,000원
서울 구연	100,000원
嶺南 宗親會	100,000원
가연회장	축전
합계	3,520,000원

# 第13期 決算報告書

(2001年 10月 1日 ~ 2002年 9月 30日)

과 목	예산액	수 입 지 부		부 기
		결산액	비 고 증 감	
회장년회비	2,000,000	2,000,000		2,000,000×1=2,000,000
부회장년회비	7,500,000	4,958,200	2,541,800	495,820×12=5,949,840
명예회장년회비	100,000		100,000	
고문년회비	1,500,000	792,400	707,600	99,050×8=792,400
이사년회비	10,000,000	3,466,750	6,533,250	99,050×35=3,466,750
운영위원년회비	5,600,000	1,696,320	3,903,680	188,480×9=1,696,320
대의원년회비	5,500,000	2,141,830	3,358,170	50,000×43=2,150,000
감사년회비	200,000	200,000		100,000×2=200,000
간사년회비	200,000	100,000	100,000	100,000×1=100,000
세대당년회비	15,000,000	14,086,620	913,380	19,810×702=14,086,620
가훈판매대금	20,000,000	3,235,500	16,764,500	
협찬금	10,000,000	8,070,000	1,930,000	
종보협찬금	549,702	4,000,000	3,450,298	
이자수익		16,568	16,568	
전기이월금	1,191	250,298	249,107	
차입금		45,455,000	45,455,000	회장입체
가불금		39,890	39,890	
통신비		35,420	35,420	
합계	78,150,893	90,544,796	49,246,283	36,852,380

과 목	예산액	지 출 지 부		부 기
		결산액	비 고 증 감	
급료	9,000,000	8,250,000	750,000	
수당	3,600,000	2,950,000	650,000	
여비	3,000,000	8,193,060	5,193,060	
회의분비	3,600,000		3,600,000	
종보발간비	10,000,000	5,100,000	4,900,000	
교양강좌비	6,000,000	3,500,000	2,500,000	
현조제향비	2,000,000	2,135,670	135,670	
유적순례비	2,500,000	3,160,640	660,640	
인쇄비	4,000,000	6,471,100	2,471,100	
식사접대비	10,000,000	13,991,150	3,991,150	
사무비품비	3,000,000	893,680	2,106,320	
임대료		11,500,000	11,500,000	
도서자료비	2,000,000	6,270,000	4,270,000	
통신비	3,000,000	7,490,320	4,490,320	
관리비		1,469,000	1,469,000	
예비비	2,950,893		2,950,893	
소모품비	3,500,000	2,536,860	963,140	
경조사비	1,500,000	3,230,000	1,730,000	
세금		127,100	127,100	
미불금	8,500,000		8,500,000	
전기료		494,930	494,930	
수선비		1,700,000	1,700,000	
수수료		254,200	254,200	
가불금		328,720	328,720	
잡비		423,336	423,336	
차기이월금		75,030	75,030	
합계	78,150,893	90,544,796	39,314,256	26,920,353

# 第14期 豫算報告書

(2002年 10月 1日 ~ 2003年 9月 30日)

과 목	수 입 지 부		부 기
	전년도예산	금년도예산	
회장년회비	2,000,000	2,000,000	2,000,000×1
부회장년회비	7,500,000	7,500,000	500,000×15
명예회장년회비	100,000	100,000	100,000×1
고문년회비	1,500,000	1,000,000	500,000
이사년회비	10,000,000	5,000,000	5,000,000
운영위원년회비	5,600,000	5,000,000	600,000
대의원년회비	5,500,000	5,500,000	50,000×110
감사년회비	200,000	200,000	100,000×2
간사년회비	200,000	200,000	100,000×2
세대당년회비	15,000,000	15,000,000	20,000×750
협찬금	20,000,000	25,000,000	5,000,000
종보협찬금	10,000,000	15,000,000	5,000,000
이자수익	549,702	500,000	49,702
가훈판매대금		5,000,000	5,000,000
이월금	1,191	200,000	198,809
합계	78,150,893	87,200,000	15,198,809

과 목	지 출 지 부		부 기
	전년도예산	금년도예산	
급료	9,000,000	9,000,000	750,000×12
수당	3,600,000	3,600,000	300,000×12
여비	3,000,000	6,000,000	3,000,000
회의비	3,600,000	5,000,000	1,400,000
종보발간비	10,000,000	10,000,000	현조향사참례 지역종친회의 참석 기타 종사출장
교양강좌비	6,000,000	6,000,000	종보발간 발송
제향비	2,000,000	2,000,000	현조제향참례비
유적순례비	2,500,000	3,000,000	500,000
인쇄비	4,000,000	5,000,000	1,000,000
식사접대비	10,000,000	12,000,000	2,000,000
사무비품비	3,000,000	4,000,000	1,000,000
도서자료비	2,000,000	3,000,000	1,000,000
통신비	3,000,000	4,000,000	1,000,000
경조사비	1,500,000	3,000,000	1,500,000
소모품비	3,500,000	3,500,000	
예비비	2,950,893	5,000,000	2,049,107
미불금	8,500,000		8,500,000
수선비		2,000,000	2,000,000
관리비		1,000,000	1,000,000
기타		100,000	100,000
합계	78,150,893	87,200,000	17,549,107

# 大同譜編纂委員會議

# 壬午年 始祖 時享祭

2002年 12月 12日 11時 大同譜編纂委員會議가 中央宗親會 사무실에서 開催하였다. 이날 會議는 32名 委員 中 22名이 참석하여 討議를 거쳐 아래 사항을 決議하였다.

- 아 래 -

1. 大同譜 序文 아래 世德錄 等 편찬 내용외에 전반적인 협의가 있었고
2. 大同譜 價格을 討議를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아 래 -

## 족보 가격 결정 내용

2002년 12월 12일

- |                                 |                                 |
|---------------------------------|---------------------------------|
| 1. 족보 발주 수량                     | 3,000질                          |
| 2. 일질당 인쇄비(10,000 페이지 기준)       | ₩110,000                        |
| 3. 무가족보수량                       | 500질                            |
| 4. 총 가격                         | 3,000질 × 110,000 = 330,000,000원 |
| 5. 총 금액: 330,000,000 ÷ 2,500질 = | 132,000원                        |
|                                 | (1질당 가격)                        |
| 6. 종친회관 기금조성금액                  | ₩68,000                         |
| 7. 족보 1질 가격(약 10권 예상)           | ₩200,000                        |

祖上의 빛난일 가슴에 품고 嚴肅하고 敬虔하게 奉行

壬午年 始祖 時享祭가 2002년 11월 5일 (음 10월 1日)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죽동 始祖墓所에서 中央宗親會를 비롯 全國 各 地域 宗親會와 派宗會에서 130여 宗親이 參席한 가운데 嚴肅하고 敬虔하게 奉行하였다.

특히 이날 時祭는 始祖 封墳의 잔디를 새롭게 丹粧하고 기울은 追慕碑를 바로 세우는 등 墓域을 깨끗이 整화한 가운데 初獻官에 鍾植, 亞獻官에 甲在, 終獻官에 漢洙, 祝官에 仁燮 宗親으로 分定하여 都有司 春熙宗親의 集禮로 嚴肅하고 敬虔하게 秋季墓祭를 奉行하였다.

또한 안타깝게도 2世祖이하 21世祖의 墳墓가 失傳되어 祖上님들의 魂魄이 虛空을 외로이 彷徨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不恭스럽고 罪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었으나 晚時之歎이긴 하지만 中央宗親會에서 이번에 始祖 墓 아래에 아담한 追遠祭壇을 設壇하고 追慕碑를 豎立하여 敬虔하게 告由祭를 올리므로 그 기쁨을 언어로 형언할수 없었으며 앞으로 後孫된 道理를 만분의 일이라도 하고자 계속 努力할 것을 다짐하였다.

告由祭는 春熙宗親의 集禮로 初獻官에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 亞獻官에 相容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終獻官에 榮熙 橫城公派 會長으로 分定하여 奉行하였다.

平素 爲先事に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物心兩面으로 獻誠하시는 升淵 (한화그룹회장) 宗親께서는 參拜하지 못하고 獻花를 보내 追慕하였다.



始祖墓所



2世祖 ~ 21世祖追慕碑

### \*\* 시조 시향제에 이어서 \*\*

11월7일 충남 공주시 장기면 울리재에서 持平公 都總制公 節齋公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에서 典書公

11월7일 경기도 광주시 시마루에서 襄景公(襄景公)

8일에는 여주 가남면 연대리 忠貞公(忠貞公)

9월에는 경기도 판교에서 尙衣院正公(尙衣院正公) 陝川公(陝川公)

각파(各派) 많은 宗親들이 참석하여 경건하게 奉行(奉行)하였다.

襄景公 秋亨祭

11월7일(음10월3일) 경기도 廣州市 퇴촌면 원당리 甲子原의 襄景公 幽宅에서도 전국의 70여 宗親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김문의 증흥조이신 할아버지의 얼을 가리는 추향제가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墓祀(묘사)는 初獻官(초헌관)에는 漢哲宗친, 亞獻官(아헌관)에 錫淵宗친, 終獻官(종헌관)에 錫均宗친이 分定되었고 道淵宗친이 祝文(祝文)을 奉讀(봉독) 하였다.



忠貞公 秋亨祭

11월8일(음10월4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충정공(忠貞公)幽宅에서도 전국의 40여 宗親이 참여한 가운데 할아버지의 얼을 가리는 추향제가 엄숙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임실 春熙宗親의 집례로 시작된 묘사(墓祀)는 初獻官(초헌관)에 임실에 수종 종친, 亞獻官(아헌관)에 安養明在宗친, 終獻官(종헌관)에 임실동준 종친이 分定되었고 山神獻官에 原州 창모 종친이 분임 되었다.



중앙종친회장 목사공과 시제행사 참석

-족보발간 및 편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목사공과 후손의 가승 보관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져 2002년 11월 10일(음 10월 6일) 종식회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에 소재한 牧使公(襄景公)의 4대손, 北渚公 휘 璣의 증조부) 시제에 중앙종친회 간부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목사공 직계 후손 30여명과 그 외 방계혈족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 후 목사공의 15대 종손인 수경(秀慶)의 본가에서 종친회장, 간사장, 목사공과 종친회장 보연(輔淵)을 비롯한 목사공과 대부분의 종원들과 회합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종친회장은 순천 김씨의 후손이 전부 합쳐도 5만이 못되는데 상호 알력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대동보 발간도 순천김씨 후손 전체의 대동단결을 위한 것이므로 후손 전체가 협력하고 대동단결할 것을 역설하였고, 족보편찬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족보 편수책임자인 명재(明在)씨가 나서서 그동안 시조(摠)이래 윤인(允仁)에 이르기까지 상계에 대해 각 파별로 가승이 7건이나 있었으며, 성균관과 한국정신문화원의 검증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절재공과 양경공의 잘못 났었던 계대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에대해 종원들은 가승에 따른 상계의 인정 근거, 배위기제 여부, 역사적 사실(史實) 인정여부, 절재공과 양경공계대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목사공 12대 후손인 육재(旭在)씨가 목사공과의 가승을 보관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그 가승에는 김알지(關智:경주김씨 시조)로부터 우리 순천김씨의 시조인 총(摠) 및 그 이하까지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종친회에서 이 가승 기재사실과 새로이 定立한 족보상계의 정확성을 검증기로 하였으며, 목사공과 가승과 새로이 기재되는 세계가 합치하면 목사공과는 적극적으로 족보발간에 참여할 것임을 종원들이 박수로 결의하였다.



“忠孝 節義의 志士 南隱公孝<sub>子</sub>友<sub>子</sub> 神道碑豎立” 鍾植 中央宗親會長 芳春書院誌 再發行에 誠金快擲 名門華閥의 後裔로서 本分을 다하다.

壬午年 10月 19日 (陰 9月 14日)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에 忠孝節義의 志士 南隱公孝<sub>子</sub>友<sub>子</sub> 神道碑를 豎立하고 儒林을 비롯한 貴賓들과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을 위시하여 全國各處에서 오신 後孫들이 雲集한 가운데 立碑式을 舉行하였다.

이날 立碑式은 贊洙 宗親의 執禮하에 南隱公 神道碑 初獻官에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 亞獻官에 鍾희 終獻官에 榮熙 (中央宗親會 常任顧問) 祝官 鍾희 宗親, 祭壇碑 初獻官에 상문, 亞獻官에 성원, 終獻官 봉희, 祝官 대현宗親, 追慕碑 告由祭 初獻官 相容 (中央宗親會 首席 副會長), 亞獻官 정태, 終獻官에 봉빈, 祝官에 태현宗親으로 分定하여 奉行하였다.

鍾植 中央 宗親會 會長께서 公은 天稟이 溫潤하시고 才質이 聰敏하여 經典에 뛰어나고 孝의 家風과 五常을 訓戒 德目으로 삼아 遠近間에 他氏族들의 憧憬의 龜鑑이 되었고, 清白吏 精神과 義와 德行을 쌓아 後世에 가르침이 되어 順天 金門 後孫의 가승에 忠節과 孝의 道理가 영원히 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南隱公 神道碑

또한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은 向後 芳春里를 聖域化하는데 盡力을 다할 것이며 芳春書院誌 再發行에 적극 後援하겠다면서 金一封을 快擲하셨다.

# 南隱公 孝友神道碑 推進경위

公은 太宗 戊子 (1408년)에 태어나시어 世宗朝에 弱冠으로 文科에 及第하여 여러관직을 두루 거쳐 潭陽 都護府使로 除授되신 뒤 端宗 元年(1453) 癸酉난에 族祖이신 節齋 宗瑞公의 三父子가 禍를 입어 殉節하시니 悲報를 접하자 곧 바로 갓끈을 풀고 북향 삼배후 버슬을 내놓고 南下하여 海南郡 溪谷面 芳春洞에 깊이 隱居 하신 전남 海南지역 순천김씨의 落南祖이시다.

스 공의 忠義와 德을 기리며 崇祖心을 昇揚하고 宗門의 繁昌함을 널리 알려져 宗門間의 和睦을 敦篤히 하기 爲하여 全宗門後裔들이 수차례 걸친 협의 끝에 신도비를 입비기로 뜻을 모아 2000년도부터 출향한 각지역 종친과 향리 문중과 종친이 입비 추진위원회를 아래와같이 구성하고 渾然一體가 되어 130여명의 뜻있는 宗親들로부터 總 3천만원(30,000,000)정도 獻誠금이 답지하였다.

### ◆ 아 래 ◆

共同代表	相煜 應烈	顧問	奉泰 中熙
推進委員長	正泰	都有司	在熙
海南지역 대표	正泰 亨煥 相彥 相默		
광주지역 대표	淇炫 奎太 龍得		
서울지역 대표	東臣 卓炫		

## 南隱公 神道碑文

天下君子들이 立身의 으뜸으로 생각하는 忠孝 節義의 志士에 順天金氏 門中の 諱 孝友公은 號를 南隱이라 하셨다.

公의 始祖는 攄으로 新羅 宗姓의 後裔로 弓駕 別監을 지내셨고 平陽君에 封해지셨다. 그후 여러代를 내려와 諱가 惟精이신분은 定州牧使를 歷任하셨고 三司左使 義禁府事로 麗山君에 贈職되셨다. 公의 高祖는 諱가 承聖로 朝鮮朝 太宗때 推忠翊載佐命功臣 議政府 左議政으로 平陽府院君에 被封되셨고 諡號가 襄景이시다. 曾祖의 諱는 有恭이시니 吏曹正郎을 지내셨고 祖父의 諱는 安吉이시니 求禮縣監으로 行按集御使를 지내셨다. 公의 아버님은 諱가 之海로 戶曹參議에 이르셨고 어머니는 淑夫人 鴻山韓氏 通禮良佐의 따님이셨다.

公은 太宗 戊子(1408)에 태어나시니 天稟이 순수하셨고 대단한 德望에 타고난 재주 또한 特別하셨다. 부모님 섬기기에든 갖은 精誠을 다하셨고 喪을 당하셨을 때는 가장 孝誠스런 도리로 크나큰 슬픔을 간직하셨다. 또한 널리 여러 經書에 通하고 志操를 깨끗이 지켜 그것을 집안의 遺訓으로 삼으셨다. 公은 世宗朝에 弱冠으로 文科에 及第하여 承文院 正字와 司憲府 監察을 거쳐 別侍衛를 지내셨다. 그후에 通政大夫에 오르셨고 潭陽 都護府使로 除授되신 뒤 널리 清白吏로 그고을에 이름이 높으셨다.

端宗 元年(1453)에 癸酉難이 일어나 族祖이신 節齋 宗瑞公의 三父子가 禍를 입어 殉節하시니 悲報를 들은 그날로 버슬을 내놓고 南下하여 海南郡 溪谷面 芳春洞에 깊이 隱居 杜門不出하시면서 居所에 偏額하시되 南隱居士라 하셨다.

여기에 家廟를 세워 月潭 承聖公을 中心으로 每年 十月十日에 族祖이신 節齋 宗瑞公을 기리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自身의 곧은 節義의 表象으로 삼으셨으니 그 빼어난 뜻은 三人의 禮에 비할수 있거니와 西山에서 伯夷 叔齊의 고고한 精神과 倫理에 隱居하던 陶淵明의 높은 뜻에서 어찌 다르리오

아름답도다 공이시어 君子立身에서 한때의 굽힘이 있었다하나 지켜내신 節操로 하여 그 이름은 永遠토록 빛나시니 그 精神이 後代에까지 오히려 크게 傳해져 光武7년(1903)인 癸卯년에는 儒林들이 나서서 高宗皇帝께 奏達하니 芳春書院에 配享되기에 이르렀다. 이 어찌 蔭德에서 꽃피어난 感激스런 慶事가 아니겠는가?

2002년 2월에 신도비 건립 추진위원장에 김정태 도유사에 김재희로 정하고 제반사항을 위임 총괄하도록 하여 龍冠 거북좌 대위에 신도비(높이 7자 넓이 2.5자 두께 1.5자)를 세우고

南隱公 墓前碑가 오랜 風磨雨濕으로 碑文이 毀損되어 讀解가 어려워 새로이 入碑(높이6자 넓이2자 두께1자) 하고 床石(가로5자 세로3자 높이1.5자) 과 石燈(높이 5자)을 새로이 追加 設置하였다.

2002년 10월 19일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김종식회장님과 임원들 및 대구 종친회 김영희 회장 동원재 도유사 김춘희 등 200여 종친이 참석하여 입비식을 거행하였으며

### 推進過程에서

1. 남은공 십칠대 손 영도 종친이 신도비 부지로 방춘리 390-1번지 소재 30평을 헌납하였으며
2. 남은공의 후손으로 출가한 손녀딸 10여명이 소식을 전해 듣고 뜻깊은 사업에 좌시할수 없다며 일백여만원의 성금을 보내왔으며
3. 특히 성금하신 모든 종친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일백만원 이상 獻金하신 종친을 알려 드립니다.

- 광주	상욱 1,500,000원	응열 1,500,000원
	중희 1,250,000원	준현 1,000,000원
- 서울	동신 1,000,000원	정현 1,000,000원
	영현 1,000,000원	상권 1,000,000원

根源이 깊은 물은 가름에도 마르지 않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그 가지가 茂盛한 法이다.

公의 精神이 크나큰 강물을 만들고 千年巨木으로 成長했으니 膝下에 두신 二男一女中 長男의 諱는 重倫으로 南原判官을 지내셨고 次男 重義는 工曹參議에 贈職되셨고 따님은 玄風 郭宜山에게出嫁하셨다. 固城郡守를 지낸 千鍾과 汝鍾이 孫子이며 孫女사위는 進士 林遇利 安良輔 崔切이었다. 曾孫子인 墩은 泰陵參奉이요 坵는 部將備邊郎을 지내셨으며 城은 僉節制使이시니 千鍾의 所生이고 德仁은 同知中樞府使이시니 汝鍾에게서 낳았다.

公의 配位는 淑夫人으로 縣監을 지내신 晉州河氏의 따님이며 墓는 海南郡 溪谷面 芳春里 뒷산 發孟子坐原에 公의 左側에 雙墳으로 모셔져 있다. 公의 行蹟은 三相祠記, 湖南三綱錄, 海南郡誌와 海南文獻集等 여러 史乘에도 記錄되어 있고 高宗皇帝 勅命 正三品 通政大夫 斗翼의 墓碑文에 함께 登載되어 있다.

아 공의 높은 忠節과 蔭德은 오랜 歲月속에도 世人의 耳目에 오래도록 빛내 傳해오니 아무 加損이 없겠다. 公의 明哲 保身으로 蔭德을 이어 받은 子孫들이 黑石山 奇峰의 瑞氣를 받아 子孫들이 크게 繁昌하고 公을 落鄉 不遷之祖로 모시고 祭享을 精誠껏 모시고 있으니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더구나 墳墓를 守護하고 子子孫孫 萬代의 精氣를 이어가기 위해 神道碑가 없을수 있겠는가 이에 後孫들이 至極精誠으로 誠金을 모아 神道碑를 세우고자 하니 公을 敬慕하는 마음 懇切하다 여기 삼가 銘을 붙인다.

黑石山下 芳春洞에 碩人幽宅 터를 닦아  
松柏나무 손수심어 뜻을 불허 즐기었네  
殷有三仁 生死忠節 南隱公이 如是로다  
陶淵明의 高節이요 伯夷叔齊 清風이라  
五百年前 隱遁行蹟 오늘에도 새로워라  
鄉儒發議 書院配享 百世流芳 永遠하리

檀紀 四千三百三十五年(西紀二千二年) 壬午 三月 清明日

朝鮮大學校 教授 文學博士

光山 金鍾 謹撰  
南隱公 十五代孫 贊洙 謹書  
南隱公 後孫 一同 謹立

(前面)

### 南隱公 孝友 神道碑 記實文

이곳 芳春洞은 海南郡 溪谷面 西北쪽 黑石山下 南쪽에 位置한 마을로 落鄉祖 孝友公께서 端宗 癸酉難 1453년에 族祖 宗瑞公이 忠義로서 社稷을 지키시다가 殉節하셨다는 悲報를 接하시자 哀痛해 하시며 禍를 避하기 위하여 곧 潭陽都護府使의 벼슬을 버리고 山水가 秀麗한 黑石山 아래 隱遁하시면서 굳은 志操를 象徵하는 松竹栢을 심고 이마을 이름을 芳春이라하여 成村한지 於焉 550餘年 이 지나는 동안 近世에 이르러 韓國動亂과 近代産業社會로 變化되는 過程에서 離農과 出鄉하는 宗親이 急增하여 繁昌했던 百戶 大村이 30餘戶의 宗親만이 겨우 集成村 順天金氏의 脈을 이어오고 있다.

아! 公의 遺蹟과 美德의 滔滔함이며 길이 靑史에 燦然하고 芳春洞 山麓에 瑞氣로 充滿하도다. 이에 子子孫孫 遺德을 힘입어 더욱 隆盛하리라

今般 公의 忠恭과 德을 기리며 崇祖心을 昂揚하고 宗門의 繁昌함을 널리 알려져 宗門間의 和睦을 敦篤히 하기 爲하여 全宗門 後裔들이 誠金을 모아 南隱公 孝友 神道碑를 세워 來裔로 하여금 觀感 效則케하여 永遠 無窮토록 龜鑑이 되도록 記實碑를 세워 萬歲에 길이 傳하려한다.

檀紀 4335年 西紀 2002年 壬午 5월  
 南隱公 神道碑 立碑 推進委員會  
 顧問 南隱公 十五代孫 奉泰 十七代孫 中熙  
 共同代表 相煜 應烈  
 海南地區 代表 正泰 亨煥 相彥 相默  
 光州地區 代表 淇炫 奎太 龍得  
 서울地區 代表 東臣 卓炫 賢熙

謹啓

(後面은 獻誠金者 名單임)

### 追慕祭壇 設壇 經緯

평소 뿌리의 소중함과 崇祖精神을 미덕으로 道理를 다하여 왔던 우리 가 端宗 元年 서기 1453년 癸酉난의 被禍로 襄景公 承靈의 셋째아드님 吏曹正郎 有恭 손 通政大夫 安吉 曾孫 戶曹參議 之海 通德郎 三代 四位의 墓所가 실전 오백오십여년의 장구한 세월 무급까지 祭享조차 못 시지 못하여 송구스런 마음 累代에 걸쳐 고심하였으나 금차 중앙총친회 의 대사업으로 大同譜 編纂에 힘입어 海南地域 순천김씨총친회 의 발의 로 正郎公 有恭손의 각 宗派別 門長들과 수차례 걸친 협의 끝에 2002년 2월 祭壇 設壇推進委員會를 결성 위치는 全南 海南郡 溪谷面 方春里 山 32番地 鉢孟山 명지 南隱公墓域으로 결정하고 基金은 各宗派別로 결 정하였음.

- |        |            |  |
|--------|------------|--|
| 推進委員長  | 十八代孫       | 井泰                                     |
| 總務     | 二八代孫       | 在熙                                     |
| 海南宗親會長 | 十五代孫       | 奇佑                                     |
| 委員     | 十七代孫       | 鍾大, 奉斌, 鎮孝, 正基, 東勳, 平男, 榮              |
|        | 十八代孫       | 贊洙, 殷洙, 允源, 白源, 勝夫, 雙源                 |
|        | 十九代孫       | 台煥, 亨煥, 洞煥, 季煥, 相默, 相容, 相實, 相大, 政壹, 貴星 |
|        | 二十代孫       | 台鉉, 賢熙, 晃輝, 柄洙                         |
|        | 二十一代孫      | 京二, 太均                                 |
| 二十二代孫  | 漢洙, 漢壽, 漢泰 |  |
| 二十三代孫  | 榮植         |  |

### 追慕碑文

巨木의 뿌리가 온누리에 精氣를 이어 받아 힘차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榮辱의 歲月속에서 世波(癸酉被禍)의 慌忙中에 哀痛하게도 先祖 님들의 墓가 失傳되어 지금까지 祭享할 길조차 없어 後孫들의 罪悚한 心情 累代에 걸쳐 괴로워 해 오다가

여기 新羅 宗室이신 始祖 平陽君 諱 摠의 二十二世孫이신 李朝 開國功臣으로 太宗朝에 兵曹判書를 歷任하고 世宗朝에 이르러 議政府 左議政을 지내신 襄景公 承靈의 三男이신 吏曹正郎 有恭 配 淑人 晉州柳氏와 孫 通政大夫 求禮縣監 行按集御使를 지내신 安吉 配 淑夫人 同福 吳氏에 이어 曾孫으로 通政大夫 戶曹參議 之海 配 淑夫人 鴻山韓氏와 通德郎 之守 配 恭人 利川 徐氏를 晩時之歎이나마 이제 精誠을 다하여 追慕코저 各派의 뜻을 모아 後孫인 南隱公 墓域內에 設壇하여 위 先祖님들의 魂魄을 永眠케 하고 우리 後孫들의 根幹이 健在함을 盤石에 새기나니

아! 後孫들이여 宗親間에 和睦하고 團合하여 훌륭하신 先祖님들을 부디 追慕하고 永遠토록 記憶할지어다.

西紀 2002年 壬午 三月  
 正郎公 二十代孫 正熙 謹撰  
 正郎公 十八代孫 贊洙 謹書



追慕祭壇

남은공 孝자 友 종중 부지 약 100평 일천만원(10,000,000)  
 망미당공 孝자 孫 종중 일천만원(10,000,000)  
 통덕랑공 之자 守 종중 일천오백만원(15,000,000)등  
 총 삼천오백만원(35,000,000)의 예산으로 설단비용은 총 일천일 백만원(11,000,000)정도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금액 이천사백만 원(24,000,000)으로는 위토답 약 900여평을 구입하여 그수익금 으로 매년 음 10월 10일 제향을 모실 계획입니다

# 世德祠 巡禮

2002年 12月 10日 경북 상주군 상주에 相容 副會長, 榮熙 顧問, 學元 幹事長, 龍熙 宗친이 함께 내려가, 會長 鍾淵, 仁默, 總務 仁業, 등과 만나 大同譜 참여에 대하여 협의하고, 예전 하리면에 있는 죽일현공 종손 석균 일가도 만나 대동보 참여를 협의하고 世德祠 愚谷書院 사진을 찍어 大同譜에 올릴 준비를 하였다.



襄景公 諱 承靈와 菊潭公 諱 有溫의 七世孫 號 竹日軒 諱 光燁公을 배향하고 있는 世德祠, 경북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442에 소재.



愚谷書院

## “東隱齋” 橫城公派祖 七代孫 諱 鍊珊 號 海隱公을 追慕

### 東 隱 齋 記

慶州 東南쪽 由緒 깊은 吐含山 靜脈을 이어받아 東海岸 奇峰秀岳하여 次例대로 姿態를 나타내고 東海의 氣象은 높고 鬱蒼한 松林과 대나무가 푸르게 둘러싸고 있어 아름답고 爽快한 마을 陽南 觀星村이 있는데 崇楨 仁祖 約 350餘年前부터 順天金氏가 代代로 살아온 마을이다. 여기에 東隱齋라 이름한 집이 있으니 門은 景仰門이라하여 先祖님의 崇德偉業을 追慕하는 곳이다. 이 곳 觀星村에 入郷한 順川金氏 橫城公派祖의 七代孫 諱 鍊珊 號 海隱公을 追慕之所也라 公은 橫城公의 三子 祖奉大夫監察經歷公의 六代孫으로 癸酉被禍 後 先祖五代가 失傳되어 京湖各地를 거쳐 여기에 入郷함은 派祖의 隱遁地에 後孫世居地요 君子의 居地로 삼아 累代를 이어 名望있는 門中後孫들이 繁盛하여 門戶가 數次 커지게 되었는데 清儉을 崇尚하여 儒家의 規範을 不墜하였다. 公은 癸酉被禍로 沒落當한 家門을 일으키고 子孫을 教訓하기를 必有義方으로 戒訓하여 著名顯達한 後孫이 많아 國家에 忠節輔國하였다. 公은 天性이 豪邁하여 自分安樂하니 海隱居士라 稱誦하였다. 지난 歲曆 壬辰年(1976年)에 諸後孫 相與議曰 五祖之豐功 偉烈如是赫함에도 아직 後孫들이 故郷과 같이 자리할 곳이 없으니 어찌 우리들의 허물이 아니리오 하면서 公의 七代孫 萬圭字 慶祥公의 私財 田五十八坪을 東隱齋 建立敷地로 獻納하고 諸孫들의 總意로 孱力乃合하여 東隱齋를 竣工既成하였다. 後孫 慶祥公의 崇祖精誠은 嘉尙하였고 端廟遜位時 順天吾金이 被禍를 當하여 海隱公 後孫門中이 漏譜되었던 것을 教旨와 家乘을 提出하여 丁酉譜에 入譜하니 이 功績은 全子孫이 慶祥公에게 讚辭할 일이다. 時代가 發展됨에 따라 西紀 1999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國토개발계획에 편입당하여 동재실이 撤去되었다. 後孫들은 恨歎하면서도 다른 妙方이 없어 다시 重建하기로 孱弱한 子孫이라 할지라도 門中 總意로 發議하여 동은제 중건과 失傳先祖祭壇設壇 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會長에 石淵 副會長에 慶濤 總務에 南昇 등이 (이하임원생략) 주축으로 하여 補償金 八千萬원과 後孫들의 丹誠으로 敷

地買入부터 祭壇設壇工事 齋室重建費 等 弱 二億餘원이 所要되어 歲 辛巳(2001年) 5月 11日 竣工하고 告由祭를 奉行하였음은 後孫들의 崇祖精誠으로 協力之功이라 하겠다. 東隱齋 竣工 後 새로 개편된 會長 商泰族 丈이 나에게 그 記識를 請함에 薄學非才하여 固辭했으나 不得히 先志를 繼承하려는 精誠에 感動하여 筆을 들어 生覺하니 東隱齋重建과 失傳先祖 祭壇設壇은 後孫들의 數百餘星霜토록 목은 恨을 成就하고 追慕하는 마음을 펼치게 되었으니 實로 빛나는 齋閣이 되어 後孫에게 심표가 있게 하고자 함에 무릇 사람은 祖上이 있음에 물의 根源과 나무의 뿌리 있는 것과 같아 根源이 깊게 머무른 後에는 그 흐름이 더욱 깊고 뿌리가 두텁게 심은 後에는 가지와 잎이 반드시 뻗어 남는 정한 理致라 至今 海隱公門中이 繁盛함이 四五百餘年內에 國內에서 大盛한 것은 모두 海隱公이 德을 쌓고 어짐을 닦은 所致인데 祭壇設壇과 齋閣의 重建이 늦은 感이 없지 않으나 諸孫들이 役事를 精誠 모아 汲汲한 바라 느끼게 하노니 祖上의 偉德을 닦으려 함이 곧 그것이니라 이집에 들어서는 사람은 먼저 景仰이란 門號를 보고 뜻을 生覺하고 東隱이란 掖號를 보고 枵라 위에 올라 先祖의 偉業과 家聲이 無墜토록함이 더욱 빛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데 諸公들은 힘쓰길 바라노라.

歲壬午年(2002年) 入冬  
橫城公派 宗會長 從後孫 榮熙 謹記  
十三代孫 亨在 謹書



東隱齋



# 司直派 墓地淨化 告由祭 嚴修

全北 任實郡 三溪面 三隱里에 있는 監察公의 長子 司直公 諱以權의 묘역이 퇴락하여 후손들 사초할 때마다 죄스럽기 그지 없었다가 16대손 東英씨를 중심으로 정화추진기구를 구성 자금을 獻誠하고 勞役에 참석하여 사진과 같이 雄壯하게 改奉楹, 立碑등 공사를 마치고 지난 음 10월 4일 많은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제관 貴浩, 祝官 學元 그리고 본제 초헌관 東哲 아헌관 明在 종찬관에 외손 沈炳德 축관 學熙로 하고 春熙 잡례로 告由祭를 엄수하였다. 특히 16대손 東哲의 단독 출자로 墓碣이 豎立되었고 본 공사를 위한 東勲과 春熙의 노고 또한 償贊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司直派 墓地淨化 告由祭



## 人 事 動 靜

新任 : 常任顧問 金榮熙 (橫城公派 派宗會 會長) 副會長 金輔淵 (牧使公派 派宗會 會長) 宗報 編輯委員 金相容 (常任副會長) 金學元 (副會長 겸 幹事長) 金秀淵 (前 言論人) 金龜淵 理 事	解任 : 顧問 金佑永 (서울 광진구 자양3동) 理事 金哲永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	---

### 動 靜

지방재정 전문가  
**慶北漆谷 副郡守 金宜遠**  
 (橫城公 15世孫)



- ❖ 74년 8월 4급을류(현행 7급) 행정직 공채합격.
- ❖ 경북 달성군, 경북도청, 내무부 근무
- ❖ 경상북도 교육관 교관, 세정과 세무조사계장, 세정계장(5급)
- ❖ 경상북도 세정과장, 예산담당관(4급)
- ❖ 2000. 8. 5 ~ 2002. 7. 25(4급).
- ❖ 내무부장관 표창
- ❖ 국무총리 표창



# 萬仞山紀行文



철원공 19세손 김명환

순김 종친 40여명이 대전광역시 동구하소동에 있는 萬仞山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산자락의 연못은 해맑은 산바람에 이름모를 꽃나무와 풀을 아름답게 꾸민 야생화 동산에 새들의 집을 지어주고 꽃사슴, 너구리, 원숭이등의 희귀동물의 사육장, 자연학습전시관 천문대 전체투명관 등의 어마어마한 시설물은 국토녹화 사업의 눈부신 드라마다. 알고보면 이 곳 대전광역시 만인산 푸른 학습원에서 초, 중, 고생들과 일반 시민의 자연환경 학습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대부분 7, 80이넘은 고령임을 알아차린 학습원장(金相大 목제공 15대손)이 승용차와 반트럭 한대를 내주어 20리길 만인산 정상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 산마루에 그림같은 2층 누각이 선뜻 눈에 띄었다. 김원장의 말은 서울 북악산 기슭의 세검정을 본따서 지은 고평정(丁)자 형의 萬仞樓란다. 누각 뒷벽면의 현판문(金相大 지음)에는 유서깊은 만인산을 아낌없이 구가한 내용으로서 만인산의 전모를 한눈에 읽을수 있었다.

1748년에 창건한 洗劍亭은 北渚公(金壘祖), 李适을 평정하고 피물은 칼을 씻어 칼집에 넣었다는데서 세검이라고 이름하였단다. 의미를 되세겨 보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다. 세검정을 본따서 세운 萬仞樓 역시 온누리에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상징성 누각이라고보아 順金祖 孫간의 영적교감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인루에 올라서서 사방을 휘 돌아다보면 60만평(김원장의 말) 드넓은 林野 높고 낮음이 없는 산봉우리 봉우리들이 1만을 헤아린다고 하여 예로부터 萬仞山 이라고 일컬어온 산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군인 1만 여명의 사단 병력이 운집하고 있는 형상 그대로다. 그래서인지 이산을 군사요새지로 삼고 동쪽 가지의 定起峰에 봉화대를 설치하여 외구의 침략을 방어 국토 방위에 한몫을 톡톡히 해낸 유적지로서 유명하다. 그리고 남쪽 가지의 蓮花峰에는 李太祖(李成桂)의 胎室이 봉안된 곳으로도 이름나 있다. 하늘을 날던 구름 까지도 내려 앉아서 편안히 쉬어가는 만인산 1만 봉우리 만큼이나 많은 후미진 골짜기엔 10년 왕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살살 흐르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철새 텃새 63여종이 제멋대로 집을 짓고 노래하면서 계절따라 하늘에 무리지어 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그러고 보면 만인산은 너무 아름답다. 만인산의 하늘만큼 푸른 하늘이 있을까? 만인산 하늘에 별만큼 빛나는 별이 있을까? 잠시 사색에 잠겨서 있노라니 파랗게 물든 남빛 하늘아래 저녁놀이 슬쩍 드러서면서 우리들을 무심코 몰아내는 바람에 만인루 계단을 종종이 내려섰다.

일행은 올라올때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와 반트럭에 분승 산허리를 휘돌아 내려왔다. 해는 저물어 간다. 푸른 학습원장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만인산 관광을 잘하고 갑니다라는 인사를 올리고 한화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萬人仰視 萬仞樓 萬仞山高樓下在

(만인루를 만인이 우러러보니 만인산이 높다해도 누각아래 있네)

# 또 뭘하려고 대중회를 들먹이나

철원공 19대손 김명환

大宗會는 文字 그대로 큰 종친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각과를 총망라한 중앙종친회가 대중회 인것이다. 하지만 항간에 양경공과 대중회를 만든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들려 오길래, 그선 봉에 섰다는 분들의 면면을 알고보면 기왕 구성하였던 대중회에 참여 했거나 찬미한 분들이기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바 순김의 앞날이 어수선한 가운데 불화의 조짐이 보인다. 오늘날 증오로 얼룩진 순김의 현실을 보노라면 진흙탕 속에 싸우다가 헤어져서 싸늘한 들녘에서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메이는 양상이다. 우리 순박하여 본관의 이름 까지도 정경운 순천김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그러 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1984년 갑자 대동보 서문에 그해답이 나온다.

서문내용요약

① 맨처음 갑신보를 간행할 때에 지평공파를 별록으로 실려 놓은데 대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모두 유감으로 여겼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두집안이 합보하기로 타협을 보았기 때문에 명칭을 대동보라 하였다.(실제로는 합보를 하지않고, 거짓이 된것이다.)

② 또 持平公은 菊窓公이 발간한 平誠世稿 서문발어가 확신을 하고 持平公을 典書公의 맏아들로 입록하고, 전서공의 長子 殿直公을 次子로 입록 한 것을 전서공 祭壇碑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으니 우리 두집안(양경공파와 지평공파의 뜻)으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은 모두 허위 사실임)완전히 족보를 속여서 꾸민 결과가 된것이다. 이런 판국에 지평공파와 철원공파 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양경공파와 상호불신의 벽이 쌓이게 된 현실이다. 1984년 대중회(회장 김채용, 총무 김명환)를 급조농지 특조법 (84. 12. 30) 양경공 위토담 및 임야 모두 30여필지를 발굴, 양경공파 조종등기 한 것을 제외하고는 1987년 순김 대중회 (회장 김중호) 1991년 순김 대중회 (김수영)의 두차례 식이나 대중회를 구성하였지만 그후 오늘날까지 지평공파와 철원공파와의 오히려 불화를 심화 시켰을뿐, 대중회다운 사업하나 제대로 한사실이 없다. 그리고 당장 붕괴 직전의 불성모양인 경덕제(양경공제실)마저 무관심 속에 허송세월 하고도 甲子譜 성과 碑를 동원재 앞마당에 세운 것은 그야말로 못지못할 면면들이 당시의 대중회 간판은 어디에다 내동댕이 치고,이제와서 또 대중회를 만들어 무엇에 쓸려고 수선을 떠는지 알수가 없다. 정 하고싶으면 차라리 양경공조 묘역 정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온 종친의 바램이다. 이 마당에 대중회라는 망상일탕 접어두고 목하 중앙종친회 지상 과제인 대동보 간행에 아낌없는 성원만이 온 순김의 도리라고 본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2년 9월 25일 ~ 2002년 11월 30일

이 사			
김원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3-9	김세연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575-14번지 삼풍파크티운 17동 301호 2002년 10월 28일
김석균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442	김영창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45-14 2002년 10월 31일
김규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99-1(4/1) 2002년 10월 28일	김동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21 2002년 11월 9일
		김택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119 2002년 11월 18일
		김중구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341 2002년 11월 27일

대의원

김학순	전라남도 순천시풍덕동 1276-8	2년10월18일
김상윤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아리 죽림 711번지	2년11월27일

누락자

김용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39-100	2년9월4일
김동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12-1501	2년3월4일
김귀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241-3741	2년4월19일

일반회원

김동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청남타운 101-803	2년10월14일
김동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51 웨미리아파트 3-504	2년10월14일
김상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29	2년10월14일
김중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강산타운 405-1601	2년10월14일
김지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시영아파트 99-501	2년10월14일
김천섭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9 거제2차현대출타운202-502	2년10월14일
김광수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삼회리 425	2년10월15일
김동석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향산3리 655	2년10월15일
김동철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295-6	2년10월15일
김봉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2년10월15일
김영수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송학1리 867	2년10월15일
김용환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19-4	2년10월15일
김종권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51	2년10월15일
김주호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공6단지 608-701	2년10월15일
김명규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6-4	2년10월16일
김옥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37-8 법무사류재운사무소	2년10월17일
김권화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611-63 38/2	2년10월18일
김순희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1리	2년10월18일
김태균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2년10월18일
김명석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250-1592 명성빌라 302호	2년10월21일
김성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3리	2년10월21일
김치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30-7	2년10월21일
김상욱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34-3	2년10월22일
김준호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19-39	2년10월22일
김형만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6-803	2년10월22일
김 호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146-402	2년10월22일
김길홍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거차517	2년10월23일
김봉배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822-1	2년10월24일
김상도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711-18	2년10월24일
김한웅	경기도 수원시 군선구 교동 201-3	2년10월24일
김기두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2년10월25일
김병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2년10월25일
김학연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22-2	2년10월25일
김길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33 반포아파트 76-502	2년10월28일
김동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6	2년10월28일
김문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149-23	2년10월28일

김중섭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2년10월28일
김근호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3반	2년10월30일
김동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2년10월30일
김성학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875 호수마을럭키아파트404-1602	2년10월30일
김영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10리 4반	2년10월30일
김정결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1리 647	2년10월30일
김상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 600	2년10월31일
김중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4	2년10월31일
김태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2년10월31일
김판영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822	2년10월31일
김강원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현대5차아파트 403-1103	2년10월8일
김중근	울산시 중구 다운동 595-4	2년10월9일
김영국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동리	2년11월1일
김상진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당후리	2년11월4일
김권홍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727	2년11월11일
김영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846	2년11월14일
김동철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242	2년11월18일
김재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 111-106	2년11월19일
김순영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145	2년11월20일
김창수	광주시 남구 봉선2동 무등아파트 202-504	2년11월20일
김이승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4 매화아파트 302	2년11월25일
김태일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88-11	2년11월28일
김상민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적거리 330	2년11월29일

성명미기재자

축협/보령	2년10월15일
국민/안양	2년10월16일
농협/임실	2년10월23일
우리/직전동	2년10월24일
우체국/발산	2년10월25일
농협/임동	2년10월25일
기업/노원	2년10월29일
농협/남천	2년10월29일
청천/농협	2년10월30일
웅천/농협	2년10월31일
해남/농협	2년10월31일
화천/국민	2년11월1일
주산/법조타운	2년11월1일
외환/연희동	2년11월4일





# 모두가 '행복' 이라 부르는 곳

매일 아침 당신이 처음 창을 여는 곳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당신의 하루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는 곳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는 곳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

당신의 웃음이 가장 밝아 보이는 곳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곳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밥세 마주앉아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잠시 불을 끄는 곳

모두가 '행복' 이라 부르는 곳에  
한화종합화학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생활공간에서 아름다운 행복공간까지  
한화종합화학은 고객의 행복한 생활을 디자인합니다



- 창호 사업** 다양한 디자인과 앞서가는 기능으로 인테리어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상재 사업** 바다장식재의 대표주자로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고객의 감각과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 장식재사업** 우수한 품질의 표면미감재와 인테리어용 인조대리석 등이 생활의 품격을 더해 드립니다
- 부품 사업** 자동차 내장재에서 산업자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